

「華音啓蒙諺解」에 보이는 近代漢語의 특징*

- 「官話指南」과 비교해서 -

王清棟**

<목 차>

1. 序論
2. 先行研究
3. 華音啓蒙諺解의 語彙 特徵
 - 1) 語氣助詞
 - 2) 名詞
 - 3) 動詞
 - 4) 副詞
 - 5) 介詞
4. 結論

1. 序論

조선 高宗20년(癸未년:1883)에 尹泰駿이 「華音啓蒙」序에서 다음과 같이 쓰면서 책의 시대적 배경과 편찬목적은 설명되어 있다.

‘…舊有老乞大, 朴通事, 譯語類解等書, 而華語之各省或古今亦殊, 驟看者轉相訛誤, 恐不無鼠璞之混燭之謬矣, 今李知樞應憲取常行實用之語畧加編輯, 名之曰華音啓蒙, 若千字文, 百家姓, 並用燕京話譯之以東諺, 開卷瞭然, 如置莊嶽, 而求齊語…’

(…예전에 「노걸대」, 「박통사」, 「역어유해」 등의 책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언어는 가 지방마다 다르고 옛날과 자금이 또한 달라서 잘 구분하지 못하면 쉽

* 이 연구는 2001년 10월 27일 한밭대학교에서 열렸던 한밭대학교 중국어과 창설 10주년 기념 ‘2001年度 秋季 聯合學術大會’에서 발표되었던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BK21 고려대학교 한국학 교육·연구단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 高麗大 國文科 博士課程

게 착오를 일으키고 혼동하는 것이 없지 않았다. 지금 이응헌이 실용적인 말들을 택하여 약간 편집해서 「화음계몽」이라고 한다. 그 밖에 천자문, 백가성도 같이 북경어로 써서 언해를 했다. 책을 펴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마치 莊嶽(齊國의 수도)에 처해 齊國 말을 구하니…)

이 序文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자료의 著者, 적어도 編輯者가 '李應憲'이 되는 것이다¹⁾. 또 「華音啓蒙」을 언해한 「華音啓蒙諺解」(이하 「화언」이라 약칭함)는 上下 2권이 1冊이고 活字本이다. 화음계몽의 보문 부분만을 언해한 것이고, 역시 상권은 35엽, 하권은 40엽으로 되어 있다. 화음계몽처럼 서문이 없으니 저자나 諺解者가 밝힐 수가 없다.

원문의 漢語마다 한국어로 음이 표기되어 있으나 좌우 두 쪽을 표기하는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한글로 한 가지의 字音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언해 내용은 聲調표시하는 방점이 없는 것은 또 하나의 특징이다. 내용을 보면 역시 16세기 이래의 '노걸대'의 내용 구성과 비슷한 것이다²⁾.

이런 배경에 조선어 화자인 李應憲이 과연 「화음계몽언해」를 만들면서 그 당시의 漢語를 어떻게 반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 자료를 현대한어와 비교하면 많이 독특한 語法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업은 품사별 이런 주목할만한 부분을 살펴보고, 동일 시기의 다른 문헌인 「官話指南」과 비교해서, 그 당시의 漢語를 고찰하고자 한다.

2. 先行研究

그간 「화언」에 대한 연구는 먼저 강신항(1980)에서 중국자음을 표기되어 있는 語音을 살피고 음운계통을 정리하고, 임동석(1982)에서 「화언」을 언급

1) 이응헌에 관한 기록은 「譯科榜目」에 따르면 咸豐 乙卯式년에 譯科에 합격하였다는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李應憲 字稚章 戊戌生 本金山 漢學教諭正, 熱子”-「譯科榜目」卷二, 咸豐乙卯式年.

2) 이 글에서 인용한 판본은 서울대 心岳本이다.

했다. 그 후 이성란(1992), 박신영(1999) 등 논문에도 주로 漢語語音을 研究해 왔다. 그 외에 노하덕(1981), “老乞大諺解와 華音啓蒙諺解의 形態比較”에서 「화언」의 언해문의 성격에 대한 비교 연구가 있고, 정향숙(1989)에서는 화음 계몽의 虛辭와 句法 구조에 대한 연구가 있다. 최근에 맹주억, 張衛東 등에 의하여 「화언」의 음운 현상에 관련된 논문들이 나타났다.

3. 華音啓蒙諺解의 語彙特徵

1) 語氣助詞

(1) 咧

「화언」에서 '咧'의 분포는 주로 '打朝鮮國來咧'와 같이 동사 또는 형용사 뒤에 쓰여 동작 또는 변화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漢語大詞典」에서咧을 살펴보면 助詞로 분류하고 '了', '啦', '哩'의 용법과 비슷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헌에서 '咧'은 '려'로 注音하고, 출현의 빈도를 보면 '咧'은 193회 나타나고 '了'는 36회 출현한다. '了'는 주로 '說不了', '少不了', '用不了', '了不得', 이나 '化沒有了', '增了', '坐了' 등 예문처럼 後助動詞로 '동사+了' 구조를 취한다. 이런 동사 바로 뒤에 쓰이는 예문 ①②③에는 '咧'과 '了'가 공존하는 상황이 보인다.

- ① /走咧多少日子麼 오기를 몇날이 나했었느냐<상:1a>
- ② /去年纔中咧進士 去年的 갓 進士를 高中<상:3b>
- ③ /我哈咧一碗茶坐一候兒 너 ㅎ 그라 차를 마시고 ㅎ동안 안젓더니<상:31b>
- ④ /打朝鮮國來咧 朝鮮國으로쫓츠 왔노라<상:1a>
- ⑤ /走有十來天的工夫咧 오기를 열흘동안이나 도었노라<상:1a>

그리고 현대 한어에서는 '○○不是○○嗎?'의 反問疑問文은 문장의 끝 부분에 '否咧'을 쓰여 反問의 語氣를 나타낸다.

- ⑥ /這是通御路大道否咧 이는 御路를 通한 큰 길이니<상:23b>
- ⑦ /彼此都是給主子辦事否咧 彼此 다 이 나라를 위하여 일을 판단하는 거시니 <하:15b>
- ⑧ /一箇石頭否咧 호는 돌인디<하:24a>

「화언」과 거의 같은 시기에 편찬된 淸朝말기(1881)의 漢語會話 교재인 「官話指南³⁾」에서는 ‘你別瞎咧咧了<卷之二, 86쪽:8行>’(그만 지껄여)와 같이 ‘咧’을 동사 ‘마구 지껄이다’의 의미로 쓰인 방언 표현 이외에 「화언」처럼 ‘咧’자의 용법이 안 보이는 반면에 ‘了’자로 대체된다.

- ⑨ 我到貴國有三年了<四, 144:2>
- ⑩ 今年打了有一百石糧食<二, 23:5>

‘否咧’이라는 反問疑問文도 역시 보이지 않고 다음 예문처럼 ‘○○不是○○麼’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⑪ 西城江老你那兒不是要蓋房子了麼<二, 23:7>

(2) 麼

「漢語大詞典」에서는 ‘麼’를 助詞로 ‘嗎’와 용법이 같아 문장 끝에 오고 ‘疑問’

3) 「官話指南」은 일본 長崎사람인 吳啓太·鄭永邦인 지은 漢語회화교재이다. 그 序文 部分에「光緒七年辛巳 陽月下流燕京 黃裕壽 金國瓌 拜序」의 글이 있다. 즉, 黃裕壽, 金國瓌 두 사람이 써 준 서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凡例에서 나타난「明治十四年十二月 吳啓太 鄭永邦 自識」의 글을 보면 이 책의 著作年代가 「光緒七年과 「明治十四年」 즉, 서기 1881년인 것으로 알 수 있다.

「官話指南」의 내용을 보면 전체 78면(156쪽)으로 되어 있으며, 크게 「序」, 「凡例」, 「目錄」, 그리고 본문 등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본문에는 卷之一 應對須知(5面), 卷之二 官商吐屬(40章, 37面), 卷之三 使令通話(20章, 14面), 卷之四 官話問答(20章, 17面) 등 대화체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판본은 고려대학교 장서 「官話指南 全」이다. 본문 내용에는 빠진 내용 없이 기술되어 있다. 편집과정에서 실수가 발견된다 이는 쪽수 매기기에서 30쪽 다음에 바로 37쪽이 매겨져 있다. 즉, 31,32, 33, 34, 35, 36을 헤아리지 않고 바로 37쪽을 쓰고 있다. 이런 실수가 뒤쪽에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쪽수 85가 나와야 할 자리에 81이 다시 한번 더 나오고 86, 87, 88 이 나와야 할 쪽에 82, 83, 84가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81-84쪽이 두 번 매겨져 있다.

을 표시한다고 해석한다. 현대 작가인 魯迅의 문장에서도 이런 용례를 찾을 수 있다. '麼'는 怎, 甚, 這, 那와 결합해서 怎麼, 甚麼, 這麼, 那麼 등을 제외하면 주로 현대 한어처럼 문장 끝 부분에 오고 의문의 뜻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뒤와 같은 예문을 보면 '嗎'의 뜻으로 해독이 안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太田辰夫(1987)에서 '麼'는 고대 漢語의 '不', '否' 등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에서 기원해서 唐朝에 들어오면 '無'자가 생기고 이 '無'자는 '磨'자나 '摩'로 쓰기도 한다. 宋朝에 이들을 '麼'로 대체하고 '嗎'자로 쓰여진 것은 清朝의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嗎'는 非疑問句에 쓰인다고 한다.

王傳德(1996:389)는 唐朝 때 한어에서 발음인 /ma/의 疑問語氣詞 생겼다. 처음에 '無'자로 쓰이다가 '無'는 두 가지 讀音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침 晚唐 때에 '麼'의 발음이 中古漢語의 발음인 /mua/(重唇戈韻字)에서 /ma/로 변했다. 言衆들이 '麼'를 '無'의 역할을 대체시켰다.

孫錫信(1999)에서도 '嗎'의 변천과정은 '無→麼→嗎'라고 하고, '嗎'자의 被代替字인 '麼'자의 용법은 긍정-부정疑問文(yes-no question)에 쓰이고 聽者에게 '예'나 '아니오'式的 대답을 요구하는 疑問句를 구성한다고 제시한다.

이런 용법도 현대한어에서 적용하여 '嗎'도 句末에 사용하여 의문을 표시한다. 「화언」에서 '嗎는 나타나지 않아, '麼'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살펴보자.

- ① 你們貴國王爺多大寶齡麼 너의 貴國王爺寶齡이 언마시뇨<상:2b>
- ② 你們這箇店叫甚麼店麼 너의 이 店이 무슨 店이라 부르뇨<상:6a>
- ③ 怎麼不比那年人多麼 엇지하여 저히갓치 사람이 만치 아니호뇨<상:16b>
- ④ 你們府上人口多少麼 너의 府上의 人口가 언마나 되뇨<상:4a>
- ⑤ 家裏有多少地麼 집의 畝히 언마나 잇뇨<상:4b>
- ⑥ 你呢多候兒回來麼 네가 언제 도라오뇨<상:5>
- ⑦ 你們老爺們怎麼會說官話麼 너의 老爺들이 엇지하여 官話를 말홀 줄 아나냐<상:7>
- ⑧ 有多少數麼 언마 슈가되뇨<상:33a>
- ⑨ 你呢那年送我的兩幅對聯是 네 그 히 너게 보낸 두 폭 對聯은 那國人寫的麼 어니 나라 사람의 쓴 거시뇨<하:21a>
- ⑩ 今年下多大雪麼 今年의 언마 눈이 왓뇨<하:20a>

① 你當這差有幾年麼 네가 이 구실 당헌지가 몇히뇨<상:27a>

일반적으로 의문대문사가 사용되는 문장에서는 '麼'가 아니고 '呢'가 사용된다. 그런데 위의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화언」에서는 문장 끝 부분에 '麼'가 사용되면서 의문대명사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2년 먼저 출간된 「官話指南」에서는 이러한 용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麼(嗎)'와 '呢'가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면, 太田辰夫(1987)에서는 '呢'는 특정 의문(甚麼, 何時, 哪裏, 誰, 哪個, 爲何 등 의문대명사나 副詞가 쓰이는 의문문), 선택 의문(相反된 두 가지 것을 제시하여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문문), 반복 의문에 쓰인다. 기존에 있던 의문문에다 붙이기 때문에, 원래 문장의 의문을 강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嗎'와 다르다.

2) 名詞

(1) 吸(口+荒)⁴⁾

- ① 要回家也罷沒有盤纏 집의 도라가고즈 하여도 盤纏이 있지 아니코
要住下罷人家的吸(口+荒)打不開 머물고즈 하여도 남의게 빚줄니는 거슬 건덜 슈 업다<상:12a>

이 어휘 같은 경우는 「漢語大詞典」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朝鮮時代 中韓大辭典⁵⁾」에서는 「화언」의 용례 이외에 19세기말의 자료인 「學淸」의 '人家的吸(口+荒)打不開呢(남의 거슬 다 감지 못하 깃있다)' 라는 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 두 용례의 한어 注音이 다 '지황'으로 돼 있고 '빚줄니는 것'으로 이해했다. 여기서 다시 '吸(口+荒)'의 주음 '지황'으로 이 어휘의 쓰임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饑荒(ji-huang)'과의 연관성을 보면 「漢語大詞典」에 의하면 近代漢語文獻인 「兒女英雄傳」, 「紅樓夢」에서 '饑荒'을 '麻煩, 糾紛'의 의미로 해석하는

4) 이 글자는 「한글 97」에서 입력이 불가능해서 '口'와 '荒' 두 글자로 나누어 입력을 했다.

5) 「朝鮮時代 中韓大辭典」,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출판예정).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이 용례에서 ‘饑荒’과 결합하는 동사는 ‘打’는 「화언」의 용례와 일치하지만 문맥을 보면 ‘빚’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았다.

- ② 傻狗說：‘好可是好，就是咱們歇着往回裏這一走，碰着個不對眼的瞧出來呢，那不是活饑荒嗎’〈兒女英雄傳，四回〉
- ③ 他爲香芥兒不能到手，和姨媽打了多少饑荒〈紅樓夢，十六回〉
- ④ 在城亡國危之際，家庭裏還鬧甚麼饑荒呢〈老舍·四世同堂，十三〉

또한 「漢語大詞典」에서 ‘饑荒’의 다른 의미는 ‘虧空’으로도 해석한다. 현재 일부 漢語 방언에서 ‘빚, 채무’의 뜻으로 쓰이는 것처럼, 그 현대한어인 「暴風驟雨」와 「人民文學」의 용례에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한어 시기의 용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他租不到好地種，還不清拉下的饑荒〈周立波·暴風驟雨，第一部二〉
- ⑥ 窮得翹起，讓大伙替你背饑荒〈人民文學·1981年，第八期〉

(2) 土程

이 어휘는 이 자료의 용례 이외에 역시 다른 문헌에 나타나지 않았다.

- ① 我是朝鮮國人 나는 이 朝鮮 사람으로 打天津下船要往京裏去的 天津으로 부터 下船하여 北京으로 가려 ㅎ는니 今天趕着土程의緣故 오늘 趕程ㅎ는 연고로 所以不知道天黑咧 이러므로 하늘이 어두오를 아지 못ㅎ엿도다

이상 용례의 언해문에서는 ‘趕着土程’을 ‘趕程’으로 언해를 했다. ‘趕程’이라면 ‘길을 재촉하다’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령 ‘土程’이란 어휘가 그 당시에 쓰인 어휘라면, 왜 언해하는 사람이 ‘要回家也罷沒有盤纏(집의 도라가고즈 ㅎ여도 盤纏이 있지 아니코)’에서 ‘沒有盤纏’을 직접 ‘盤纏이 있지 아니코’를 언해한 것처럼 ‘土程을 趕하다’의 언해 방식을 취하지 않고 ‘趕程하다’를 언해하는 의문점이 있다.

(3) 各人

現代漢語 또는 近代漢語 소설인 「紅樓夢」(67回), 「金瓶梅」(31回, 62回), 「官話指南」(용례 ④, ⑤ 참조)에서는 '各人'이 일반적으로 인칭대명사 你, 他 등 뒤에 붙여 '自己'의 뜻으로 쓰여지거나 인칭대명사에 의지하지 않고 '제각기', '各自'의 뜻으로 쓰여지는 반면에 「화연」에서는 '각인'이 세 번 나타나고, 이 세 번은 다 한 葉에, 같은 사람의 대화 내용이며 '이녁'으로 번역을 한다. '이녁'으로 쓰고 뒤에 '-니'와 '-이'가 오는 용례도 발견할 수 있다. 이 때의 '이녁'은 과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뒤에 붙는 '-니'는 단순히 誤刻일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다. 「우리말 큰사전」4, 「옛말과 이두」에서는 '이녁'을 '이쪽', '그딴'으로 해석하고, 금성판 국어대사전은 '하오' 할 상대를 마주 대하고 얘기할 때 그를 조금 낮추어 이르는 인칭대명사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세 용례의 '各人'은 漢語 원문 문맥을 살펴보면 '나', '본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① 各人肚氣不想回家去 이녁니 氣가 나 집의 도라가기를 심각지 아니하여<상: 11b>
- ② 各人打着出門事事難 이녁이 심각건더 문을 나면 事事的 어렵고
在家千日好這句話一點兒不錯 집의 잇시면 千日이 쫓타 하니 이말이 조금도 그르지 아니하도다
- ③ 各人想不出主意來的時候兒 이녁이 主意를 심각지 못홀 썩
我有一箇姑表弟兄 너가 혼 表從형제 잇서
在這京南做箇縣官 서울 남녁히 잇서 縣官이 되엿시미<상: 12a>
- ④ 好歹總在乎各人<一, 8:4>
- ⑤ 那個無賴子不答應, 說是這張銀票是我各人的<二, 23:5>

(4) 皮氣

「화연」에서 '성품'의 의미로 쓰여진 '皮氣'는 「官話指南」에서도 그 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 「中韓辭典」을 살펴보면 '皮氣'와 '脾氣'는 의미가 같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脾氣'는 1791년에 출간된 「紅樓夢」과 「兒女英雄傳」등 문헌에서

이미 많이 쓰였는데도(②③번 용례 참조) 「화언」과 「官話指南」에서 '皮氣'를 선택해서 쓰는 배경이 무엇인지 앞으로 더 정밀하게 연구할 과제로 남았다.

- ① 這位王爺的皮氣誰咳不知道麼 이 위 王爺의 성품을 뉘 오히려 아지 못하리오
別管買甚麼東西添到價錢就 무삼 물건을 사든지 갑술 갈만큼 눅히고는
再也添不上半文錢的皮氣 다시는 半文도 더하지 아니하는 성품이라
若是左三右四不對皮氣 만일 左三右四하여 성품의 맞지 아니면
肚氣偏不買他的 성녀여 편벽히 제겨 술스지 아니하느니<하:40a>
- ② 都像寶丫頭那樣心胸兒, 脾氣兒, 真是百裏挑一的<紅樓夢, 八十四回>
- ③ 況且我打聽得姑娘的脾氣驕縱, 相貌也很平常<兒女英雄傳, 二回>

(5) 肚氣

'皮氣'와 마찬가지로 예문에서 나타난 '肚氣'도 역시 현대한어의 '賭氣'와 같은 발음으로 같은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肚氣'의 다른 용례는 찾을 수 없고, 현대한어에서도 쓰이지 않는다.

- ① 若是左三右四不對皮氣, 만일 左三右四하여 성품의 맞지 아니면
肚氣偏不買他的 성녀여 편벽히 제겨 술스지 아니하느니<하:40a>
- ② 各人肚氣不想回家去 이녀니 氣가 나 집의 도라가기를 생각지 아니하여<상: 11b>

(6) 腿子

다음 용례에서 '腿子'라는 어휘를 볼 수 있다. 언해문에서 '邊錢(利金)'으로 언해를 하였는데 근대한어 시기의 다른 문헌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漢語大詞典」의 어휘목록에도 실려 있지 않아, 한어에서 '腿子'의 정확한 의미나 용법은 알 수 없다.

- ① 把幾萬銀子都存得他那裏 幾萬銀子를 다 가다 거거 두고
- ② 一年教他放多少腿子 한히의 저로 하여금 多少 변전을 노와<상:34a>

(7) 淌消水

언해문에 '淌消水'는 '여흘물(여울)'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淌消水'와 5번의 '腿子'는 현대한어의 지식으로 풀기가 힘든 어휘 중에 예들이다. 근대한어 어휘특징 중의 하나는 口語 어휘, 즉, 방언이나 俗語, 隱語, 그리고 외래어 어휘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어휘들의 대량 출현으로 근대한어의 어휘 數量은 풍부해진다. 시대적 어휘나 방언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기 '淌消水'와 '腿子' 같은 근대에서 생긴 어휘들의 식별과정은 한어 학계에서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① 那箇淌消水也流的忒急 그 여흘물도 흐르기를 심히 급히 흐며<상:20a>

(8) 吃老金的

이 어휘는『漢語大詞典』에서 용례가 없고, 『朝鮮中韓』에서도 다른 용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吃老本'의 어휘목록을 찾을 수 있다. '갖고 있던 지식이나 능력, 功勞로 날을 보낸다'의 뜻으로 해석하니까 여기서의 '吃老金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한다.

① 我那裏開得起這樣大店 니가 어디 이런 大店을 열니오

不過是給他們吃老金的咧 不過 저의게 사환하는 이로라<상:6b>

(9) 們

'們'은 명사접미사이지만 일단 명사에 묶는다. '們'이 명사나 대명사의 뒤에 놓여 복수를 나타내는 '們'이 명사 뒤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수량사를 쓰지 않는다. 예를 들면 '五個老師們'이라고 쓰지 않는다. 『화연』에서는 대부분 문장들이 '你們', '他們'을 현대한어처럼 쓰이지만,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고 '箇+명사+們'식으로 구성된 문장은 다음의 용례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용법은 『官話指南』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 ① 你這箇潑皮東西們 네 이 흥흥 것들아<상:10a>
- ② 噯啲這箇東西們好混帳啊 아야 이 놈들이 가장 고약하다<하:20a>

3) 動詞

(1) 說

‘說’은 「화언」에서 출현 빈도수가 101회 출현으로 많이 나타나는 어휘 중
에 하나다. 이 자료에서 인용문의 ‘說是’와 ‘好說’의 용법 이외에 대부분이 ‘말하
다’의 뜻으로 현대 한어와 같이 쓰여진다.

- ① 你去說給你聽罷 너 너드려 말하여들니마<하:28b>
- ② 誰說沒有準價錢 뉘 준적혼갑시 업다더뇨<하:35a>
- ③ 這怎麼說呢 이 엇진 말이뇨<하:32a>

이런 ‘말하다’의 뜻으로 쓰여진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부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보인다. 현대 한어에서 ‘說’자 자리에 ‘告訴’나 ‘問’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정상적이다. 이런 현상은 현재 북경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에게도 쉽게
생기는 착오이기도 한다.

- ④ 你去說你們掌櫃的 네 너의 掌櫃的의게 가 말하여<상:7a>
- ⑤ 我說他這河打那裏過呢 너 저드려 니라디 이 여흘을 어디로 좃츠건너가는노
<상:20b>
- ⑥ 今年九十九歲又聾又癩說他不明白 今年的 九十九歲니 귀먹고 밋쳐서 저다려
말하여도 明白지 못하니<상:21b>

이 문헌에서 유일하게 ‘告訴’로 쓰여진 문장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언해
문에서도 ‘고소하다’로 쓰여진다.

- ⑦ 這般這般那般那般告訴他 이리저리 저의게 고소하니<상:15a>

(2) 惱

이 자료에서 '惱'자가 여덟 번 출현하고 각각 '말하다', '일을 하다' 그리고 '괴이하게 보다' 세 가지로 언해한다. 이런 세 가지 '惱'의 의미는 「漢語大詞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전 풀이 중에 '麻煩, 打擾'의 의미와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 ① 好說回來再惱罷 조흔 말이여 도라와 다시 말ᄃᆞ자<상:5b>
- ② 掌櫃的回來再惱罷 掌櫃의아 도라와 다시 말ᄃᆞ자<상:18b>
- ③ 我陪着老爺惱半天的話兒 니老爺를 모셔 半日 말슴ᄃᆞ엿시미<상:35b>
- ④ 惱半天的口 半日을 말ᄃᆞ여<하:13a>
- ⑤ 這都是我惱的不對咧 이 다 니가 일을 잘 ᄃᆞ엿노라<상:16a>
- ⑥ 惱一場大事咧 一場大事를 저출너 닐 즐 ᄃᆞ시리오<상:34b>
- ⑦ 嚟啲險些惱出大難子咧 아야 하맛 트면 큰일 날번ᄃᆞ엿다<하:33b>
- ⑧ 恐怕他怪惱我們 저 푸건디 제 우리를 고이히 불가하여<하:22a>

「官話指南」에서 출현하는 '惱'의 용례를 분석하면 현대한어처럼 '화나다, 원망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⑨ 我勸他忌烟, 他倒惱了我了<二, 60:5>

(3) 勾

'勾'는 세 문장에서 출현하고 각각 '건너다', '…된다' 등을 다르게 언해된다. ①번 같은 경우, '過'자는 이미 '건너다'의 의미를 분담하니까 '勾'자의 정체를 알 수 없다. ②예문에서는 '勾引', '勾結'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③ 예문의 勾은 '够(夠)'의 俗字이고 (일정한 정도, 기준, 수준에) 이르거나 도달한다는 뜻이다.

- ① (거+ㄱ)⁶⁾ 打那裏能勾過得去呢 어디로쫓츠 能히 건너가깃노뇨<상:20a>

6) 언해문에서 '勾'에 대한 注音符은 ①번 예문에서 '거+ㄱ'로 풀을 표기하고, ②과③ 예문에서는

- ② (구) 那太監擡頭一看 그 太監이 머리맡 들어 한번 보고
 勾我拿銀子要買呢 날드려 銀을 가져 사깃노라호니<하:21b>
- ③ (구) 一顆大的七十二顆小的 한낫 큰거시오 일흔두낫 서근거시오
 這纔是勾全套 이거시오 겨오 원벌이 되느니<하:37b>

(4) 是

‘화언’에서 ‘是’는 209회 나타난다. 현대한어처럼 이 자료에서 ‘是’의 용법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에서 한 유형은 두 종류의 사물을 연계시켜 양자가 같거나, 후자가 전자의 종류, 속성 등을 설명하는 것을 나타내는 ‘○○是○○’(○○는…이다)형태이다. 즉, 你老是外來的貴客呢(너는 밧그로 온 貴호는 客이니)<상: 3b>과 같은 예문이다. 이런 전형적인 유형 이외에 다음과 같이 특수한 용법을 발견할 수 있다.

- ① 三兄弟是該在書房念書呢 셋지 아오는 오히려 書堂에 잇서 글을 읽노라<상: 3b>
- ② 老爺們是往那裏去呢老爺들이 어디로 가나뇨<상:6b>
- ③ 這義豐家是京裏算他頭一箇號 이 義豐은 京裏의서 제일자호로 치느니<상: 33b>
- ④ 我們同來的朋友是 우리갓치 온 벗은
 他不住客店要住會館呢 제 客店의 住호지 아니호고 會館의 머물너호니<상: 25b>

위의 예문에서 사용된 ‘是’는 현대한어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 예문에 또 다른 유형은 남의 談話內容을 전달하거나 引用하는 문장에도 ‘是’를 붙여 쓰거나 ‘說是’를 붙여쓰는 형상이다. 이런 용법은 『官話指南』에서도 ‘他們說是有一位姓徐的客人, 是剛纔到的<二, 51:14>’처럼 쓰이고 있다.

- ⑤ 來到跟前問他說是 옹히 와서 저드려 무려 말호기를
 你那箇東西打那裏得來的麼 네 저 물건이 어디서 어더온거시오<하:27b>

‘구’로 표기한다.

- ⑥ 有一箇使船的說是 한 비부리는 이 잇서 말흐디
客人要上那裏去 나그니는 어디로 가려흐는노<하:30b>
- ⑦ 王爺說是我那箇珠子不是買的 <하:39a>
- ⑧ 他說是沒有一點兒不全的 제가 니르디 하나토 업는 거시업시니<상:32a>

4) 副詞

(1) 好

여기서의 '好'는 현대한어에서 '很'과 같은 뜻으로 보인다. 즉, 형용사, 동사의 앞에 쓰여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내며, 감탄의 성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好+형용사+的+名詞'의 순서로 구성된다. 그래서 ①번 예문은 '的'을 붙여야 자연스럽다. ②번 예문은 의미로 볼 때 '是'는 '有'로 교체를 하여야 한다.

- ① 這上海是好大去處 이 上海는 가장 큰 곳이라 흐여<상:28a>
- ② 噯啲你老是好大的前程 아야 네가 이 가장 큰 前程이로다<하:2b>

(2) 狠

'狠'과 '很'은 형용사 동사의 앞에 쓰여 형용사가 가리키는 성질이나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다. 淸朝부터 '很'은 활발히 쓰이기 시작했다⁷⁾. 「官話指南」에서도 '很'만 나타나고, '狠'이 사용되지 않았다. 「화언」은 淸朝末期에 쓰여진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很'의 사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 ① 我看今兒箇天氣不狠亮咧 니 오늘 일괴톨 보니 심히 맑지 못흐다<상:18a>
- ② 好的狠 가장 좃타<하:3b>
- ③ 教我心裏爽快的狠 날로 흐여곰 마음이 가장 시원흐여라<하:8a>

7) 太田辰夫(1987)에서 '很'은 형용사 '凶狠'에서 虛化해 온 것이다. 자형은 '狠'이나 '口+艮'이기도 하고 元朝때부터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很'은 몽고인과 접촉이 많은 북방 사람들 사이에 쓰이는 속어이다. 明朝에 들어와서「西遊記」와 같은 북경어와 다른 방언에도 나타난다. 淸朝부터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한다.

④ 這箇石頭古怪的狠 이 돌이 가장 古怪호도다<하:24a>

(3) 好生

이 어휘는 일찍이 書經·大禹謨에서 '好生之德, 洽于民心'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 때의 好(·)生은 '生靈을 애호하다'라는 뜻이고 현대한어에서도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화언'에서 보이는 '好生'이 발음도 다르게 好(v)生으로 읽어야 되고, 의미도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元朝 이후의 소설이나 자료, 그리고 譯學書인 '老朴'에서 '가장'이나 '매우'의 뜻으로 등장한다. 梁伍鎮(1998:173)은 '好生'은 '老朴新, 老朴新諺'에서 대부분은 다른 형태로 바뀌어 사용되었으므로 그 용례가 현저히 줄었으며 현대한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① 噯啲你這位好生面善 아야 너 이 位가 가장 낫치 익다

② 咱們必是在那裏見過是的 우리가 반드시 어디서 본듯호라<상:11a>

(4) 不定

흔히 의문을 나타내는 단어나 긍정과 부정이 겹치는 표현과 함께 사용하여 '說不定'으로도 사용된다. 즉 '확실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의 뜻이다.

① 別說你們這⊖小河 너의 이런 적은 기울은 니리지 말고

② 連有名的大河也不定走過幾會咧 有名호 큰 기울도 몇번 단닌지 이지 못호깃다. <상:24b>

③ 他拿錢換命不定化多少銀子咧 제 돈을 가져 命을 밧구니 언마 銀을 셋는지 모틀러라<상:35a>

④ 等着貴國人再來的時候兒 貴國사람이 다시 올 씨틀 기다러

教我咳要買兩幅呢 날로 호여곰 쏘 두 幅을 사고져 호니

不定有沒那樣的麼 이지 못게라 그런 거시 잇느냐 업느냐<하:22b>

⑤ 放在青〔山+更〕上以來 青〔山+更〕산 우회 노야오므로

不定有多少的輪迴 언마 輪迴가 잇섯는지 定치 못 호다<하:28b>

⑥ 那一陣狂風惡雨 그 一陣狂風과 사오나온 비의

把這隻船兒不定刮到甚麼地方去咧 이 비룻다기 어니 地方의 부러갈지 이지 못
 ㅎ깃시니<하:33a>

「官話指南」에서 나타나는 '不定'의 용법과 의미가 「화언」에서의 그와 일치
 하다.

⑦ 不定那一天就許着了<三, 106:3>

(5) 咳

이 어휘의 字形을 볼 때 근대한어에서 나타난 語氣 조사 '咳'와 같다. '咳'는
 감탄사이며 '督促'의 의미를 나타내는 語氣詞이기도 한다. 孫錫信(1999)에서 현
 대한어의 '哎'는 '咳'로부터 발전해 온 것이 아닌가 하고, '咳'의 이런 용법은 宋,
 元시대에 少數로 발견되며 明, 淸시대에 전혀 용례가 발견되지 않다고 제시한다.
 「官話指南」에서는 '咳'가 나타나지 않고 '還'의 용례만 발견된다.

① 那還倒情有可原<二, 64:14>

② 這是甚麼你還狡<三, 107:2>

그러나, 다음 용례에서 '咳'의 의미는 현대한어의 '還'으로 충당할 수 있다.
 두 단어는 일단 발음이 흡사해서 誤用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한다.

③ 咳有幾里地麼 여기서 北京가기가 또 멧 참길이 되느뇨<상:5a>

④ 教我咳要買兩幅呢 날로 ㅎ여곰 또 두 幅을 사고져 ㅎ니<하:22b>

⑤ 這咳問我麼 이 오히려 너게 못느냐<하:40b>

5) 介詞

(1) 望

望은 '…을 향하여', '…의 쪽으로'의 의미를 표시하는 介詞이다. 현대한어

에서는 '往'을 쓴다. 이 자료에서 '往'과 '望'은 각각 25회, 5회로 출현한다. 이것은 당시 두 어휘의 혼용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 ① 第二天起身望京去的時候兒 그 잇튼날 떠나서 서울노 갈씨의<상:12b>
- ② 望那女兒身上一通 그 계집 身上으로 혼번 지른디<상:30a>
- ③ 東張西望也沒有躲着的地方 東으로 샅피고 西호로 바라보와도 숨을 썩히 업서 <상:14b>

「官話指南」에서 '…을 향하여', '…의 쪽으로'의 의미는 介詞 '往'으로 표시한다.

- ④ 你把烟忌了, 再要往下吃, 可就怕不好了<二, 60:10>

(2) 在

介詞는 그 目的語와 敘述語의 의미관계로 여러 가지의 분류를 할 수 있다. 介詞의 목적어는 介詞와 그 뒤의 서술어를 통하여 논항관계(argument relation)를 생긴다.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서술어에 적어도 하나의 논항이 필요하다. 格理論(case theory)에 의하면 명사 구성은 格이 취득하여야 한다. 서술어의 內部論項(internal argument)이 동사에게서 격을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介詞를 통해서 格을 얻을 수 있다. 介詞의 올바른 선택 여부는 그 논항(argument)과 서술어 사이의 의미관계에 달려 있다. 이런 의미관계는 意味役(thematic role)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한어에 있어서 '跟, 和, 由, 從, 在' 등 많은 介詞들이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고 그들이 수행하는 의미역도 다양하다. '在' 같은 경우는 현대 한어에 있어서 處所(locative), 시간(time), 범위(sphere) 세 가지의 의미역을 담당한다.

처소를 제시하는 경우는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나타내고 '…에 있다'의 뜻으로 되고, 시간일 경우는,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간, 장소, 범위, 상황을 나타내고 '…에(서)'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副詞일 경우, '正在'의 생략형

이라고 볼 수 있고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며, '지금 [막] ...하고 있다'에 해당이 된다.

이 자료에서 '在'는 76회 출현한다.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에서', '...에 있다', '계시다'의 의미로 쓰여진다. 즉, 처소의 의미,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리고 '세상에 있다는 말'의 높임말인 '계시다'가 된다.

①'에서(의서,...의 잇서)'

/大人在那部裏管事麼 大人이 어니 마을에서 일을 주관하노뇨<상:2a>

/所以在那裏買些東西 이리므로 거기서 저기 물건을 스니<상:32b>

②'-에(의)'

/三兄弟是咳在書房念書呢 셋지 아오논 오히려 書堂에 잇서 글을 읽노라 <상:3b>

/以後拿這箇魚甩在鍋裏 그 後의 이 고기물 가져 가마의 더지고<상:9a>

/我在本國時候兒 니 本國의 잇실씨<상:28a>

③'계시다'

/只有老母在着咧 다만 老母만 계시여라<상:27a>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용례 이외에 다음과 같은 용례에서 '在'자의 용례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용례의 문맥을 살펴보면 '在'자가 담당하는 의미는 '起點'의 뜻이 이어야 된다. 그러나 근대 한어나 현대 한어에서 '在'자에 '어디서부터'라는 쓰임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기점(移動型)의 의미를 가진 介詞인 '從, 自, 由, 打從'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현상은 아마 한국인 화자가 가지는 의미역 구조가 '在=-에(에서)'이고, '어디서 왔다'를 漢語를 표시할 때 그대로 '在'를 붙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①/我在城外頭來咧 니 성 밖기서 왔노라

金老爺昨兒箇在城外那裏來着 金老爺아 어제 성밖 어딴서 왔나뇨<하:12b>

②/那一天在河沿走來時候兒 어니날 물가의의서 오고갈 씨 <하:27a>

4. 結論

「화언계몽언해」는 1883년에 司譯院에 漢語를 學習하기 위하여 간행된 漢語教材만큼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저자, 회화 내용 등이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 편찬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책의 특수한 언어 현상들을 살펴봤다. 그 내용 중에서 현대 漢語와 다르게 쓰이는 어휘나 어법 현상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2년 먼저 출간된 「官話指南」과 비교해도 어휘나 용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화음계몽」이 편찬됐을 때, 당시 漢語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 王力(1980:35)에서는 한어의 시대 구분은 1. 上古, 2. 中古, 3. 近代, 4. 現代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근대 한어 시기는 13세기부터 19세기의 鴉片戰爭(1840)까지의 기간을 정하고, 1840년 鴉片戰爭에서 1919년의 五四運動까지의 시기는 過渡期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과도기의 漢語 특징은 현대 白話와 早期白話의 교착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呂叔湘(1984) 같은 학자들은 현대 한어의 직접적인 기원은 唐, 宋, 元, 清 시기의 소위 근대한어부터 시작된다고 하여 양자의 유사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화언」의 문장을 살펴보면서 현대한어와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현상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일본인이 만든 「官話指南」과 같은 성격을 가진 漢語教材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나 어휘 사용 측면에 동일시기의 특징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漢語를 배우는 저자 자신의 언어배경에서 생긴 현상도 있고, 기존의 「老朴」같은 前시대 會話자료의 영향을 받은 것, 근대한어의 복잡한 언어 현상, 그리고 당시의 언어와 현대한어의 사이의 차이, 이 네 가지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參考文獻】

1. 사전

- 김민수 외(1995). 「금성판 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閔家驥 외(1991). 「漢語方言常用詞詞典」, 浙江: 浙江教育出版社.
 민족문화연구소(1993). 「中韓辭典」, 서울: 고려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출판예정). 「朝鮮時代 中韓大辭典」, 선문대학교.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4. '옛말과 이두'. 서울: 어문각.
 漢語大詞典出版社(1995).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 논저

- 姜信沆(1980). “華音啓蒙內 字音의 音系”, 동방학지 23-24 合輯.
 노하덕(1981). “老乞大諺解와 華音啓蒙諺解의 形態比較”,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董同龢(1996). 「漢語音韻學」, 臺北: 文史哲出版社.
 박신영(1999). “華音啓蒙諺解의 漢語 語音 研究”, 한국외대, 석사논문.
 富善(Chauncey Goodwill)(1898). 「官話萃珍」, 中國語學資料叢刊 白話研究 제4권
 에 수록.
 孫錫信(1999). 「近代漢語語氣詞」北京: 語文出版社.
 鄭光(1978). “類解類 譯學書에 대하여”, 「국어학」, 국어학회.
 정향숙(1989). “화음계몽의 허사와 구법결구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趙元任(1994). 「中國語的文法」, 臺北: 臺灣學生書局.
 안미경(1989). “朝鮮朝 譯學書의 版種에 關하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呂叔湘(1984). 「漢語語法論文集」北京: 科學出版社, 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梁伍鐵(1998). 「老乞大 朴通事 研究」, 서울: 태학사.
 吳啓太·鄭永邦(1881). 「官話指南」, 발행지불명, 고려대학교 대학원도서관장서.
 王力(1980).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王傳德(1996). 「漢語史」, 濟南: 濟南出版社.
 이성란(1992). “華音啓蒙諺解에 나타난 19세기 中國語音研究”,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이승녕(1978). “/、/音의 消失期推定에 對하여”, 학술논문집 16.
 李鍾九(2000). “『官話指南』에 보이는 清末官話의 모습”, 中國學研究 19, 중국학연구회.
 장순여(1937). 「北平音系十三韻」, 中國大辭典編纂處.
 太田辰夫(1987). 「中國語歷史文法」(1958版), 蔣紹愚 外 譯 北京大學出版社.